

## 사회적 이슈 기획도서

# 국내외 출판계에선 어떻게 하나

## 월드컵 스타, 선거철 정치인 인생담, 책으로

이구용 (주)임프리마코리아 에이전시 상무이사

맞춤서비스? 혹은 시즌 기획상품? 이 단어들은 어느새 출판시장에서도 낯익은 말이 됐다. 적절한 시기에 독자들이 찾을 만한 기획도서의 출간이 이미 활성화 돼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기획 출간이 이제는 어느 특정 시즌에 임박해 급조되기 보다는 비교적 시간적 공간을 두고 사전에 치밀한 준비 하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과거의 패턴과는 어느 정도 차별된다. 고무적인 일이다.

출판업계에서 바라보는 시즌은 연중 다양하게 분포한다. 그중엔 책이 잘 팔려 호재로 보는 시즌이 있고, 책이 잘 팔리지 않아 악재로 보는 시즌도 있다. 그러나 모든 출판사에게 악재로 작용하거나, 모든 출판사에게 호재로 작용하는 시즌은 없다. 입학(입사), 신학기, 방학(휴가), 입시, 졸업 등은 상시 존재하는 시즌이며, 월드컵(올림픽), 선거(대선, 총선) 등은 수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찾아오는 시즌이며, 이번에는 예기치 않게 느닷없이 찾아오는 특별 시즌도 가끔씩 있다. 따라서 상시 포진하고 있는 시즌에 맞춘 기획도서는 비교적 견고함이 있으며, 내용상 변수 또한 그다지 많지 않아 그때그때 다가서는 시대적, 사회적 변화 정보를 추가구성하면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수년에 한 번씩 찾아오는 시즌을 겨냥한 출판기획 역시 사전의 치밀한 기획이 얼마든 가능하다. 그러나 예상치 않게 다가오는 특수 시즌에 맞춘 기획은 다소 급조의 성향이 있어, 간혹 그 도서 내용이 부실하게 나타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일례로, 일전 하인즈 위드가 일약 세계적인 스타로 발돋움하자 이에 시기를 놓칠세라 그에 대한 전기를 영성하게 급조해 책을 출간하는 바람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등, 알팍한 상흔을 노출시켜 주위의 빈축을 산 일도 있다.

2002 한일월드컵 당시 히딩크 관련서가 좋은 반응을 얻는 가운데 해외 번역판권까지 수출되는 등 다양한 성과를 올린 한국 출판계는, 2006 독일월드컵 시즌에도 예외 없이 다수의 축구 관련서를 서점가에 내놓았다. 그 중 지난 3월에 출간된 박지성 선수의 《멈추지 않는 도전》(랜덤하우스중앙)과 5월에 출간된 디 아드보카트 감독의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다》(랜덤하우스중앙)는 이미 월드컵 특수 덕을 톡톡히 보고 있는 주인공들이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 눈에 띄는 도서들로는 본격적인 축구 관련서에서 한 발 비켜선 것들로, 지난 6월 초에 출간된 장미영, 최명원 교수가 쓴 〈독일: 내면의 여백이 아름다운 나라〉(리수), 4월에 출간된 황성근 씨의 《독일 문화 읽기》(북코리아), 그리고 작년 8월에 출간된 김영찬 씨의 《독일건 문록》(김&정) 등이 있다. 이 도서들은 월드컵 시즌에 맞춰 기획된 도서들로 보이긴 하나, 앞서 언급된 책들과는 달리 독일의 사회, 문화, 정치, 경제 등 월드컵 개최국인 독일의 전반에 걸친 지식과 정보를 일반 독자들이 쉽게 습득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어, 월드컵 축구를 즐기는 가운데 독일의 이모저모를 짚어볼 수 있도록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시즌 후에도 스테디셀러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책들로도 손색이 없어 보인다.

해외에서도 월드컵 시즌의 덕을 볼 생각으로 기획되는 책들이 적지 않다. 그중 을 상반기에 《펠레 자서전(Pele: An Autobiography)》이 브라질에서 출간되었으며, 영국에서는 아직 출간되진 않았지만 2006 독일월드컵 직후에 1권을 내고, 2018년에 5권을 낼 계획으로 웨인 루니는 하퍼콜린스 출판사와 500만 파운드(한화 84억원 가량)의 선인세 조건으로 계약을 마친 것으로 알려져 세계인들을 놀라

게 했다. 이 계약조건은 베컴의 자서전 《마이 사이드(My Side)》가 출간당시 210만 파운드(약 35억원)에 계약된 것을 비추어 볼 때 어마어마한 조건임에 분명하다. 루니 자서전의 편집 관계자는 루니의 축구 인생을 관통하는 책을 10여 년간의 기획 일정으로 출판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그것은 루니가 뛰어난 선수임에는 분명하나 프리미어 축구 인생이 미천하며, 나이 또한 20세 밖에 되지 않는 어린 선수에 대한 자서전을 그토록 어마어마한 조건으로 계약을 했다는 것이 마뜩치 않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시즌에 맞춰 책을 출간하더라도 그 책의 생명력이 특정 시즌은 물론 그 시즌이 지난 후에도 꾸준히 팔리고 읽힐 책을 기획하고 출판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런 측면에서 루니의 자서전은 일면 호응을 하고 있다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여러 측면에서 향후 루니의 자서전 출간에 대한 반응은 지켜볼 일이다.

한편, 선거철(대선, 총선 등)이 도래하면 어김없이 정치인들의 눈물겹도록 감동적인 인생사나 정치철학이 담긴 전기나 자서전이 앞다퉀 출간된다. 해외의 경우에, 이 분야의 책들은 특정 시즌에 맞춰 출간되기도 하지만, 반면 비교적 시간적 여유를 두고 특정 시즌과 무관하게 출간되기도 한다. 미국의 보수파 진영의 작가 앤 쿨터(Ann Coulter)와 데이빗 프럼(David Frum), 그리고 진보파 진영의 마이클 무어(Michael Moore) 등은 선거시즌을 전후로 하거나, 혹은 아예 특수 시즌과는 무관하게 꾸준히 책을 내고 있어 '한 철'을 위한 작가가 아닌 '사시사철' 베스트셀러 작가로 이미 입지를 굳힌 인물들이다. 이 외에도, 힐러리 클린턴이나 미 공화당 의원인 존 매케인(John S. McCain)의 경우도 이미 정치인으로서 뿐만 아니라 베스트셀러 작가로서도 세계적인 인지도를 쌓고 있는 작가들이다.

결국, 특수 시즌에 즈음한 출판기획은 동, 서양이 따로 없다. 독자들에게 해당 시즌에 가장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인물이나 사건에 대한 내용을 책으로 묶어 내놓는 것은 출판사의 영리목적 이외에도 독자들에게 시기적으로 가장 필요로 하는 내용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어서 시즌 기획은 누구에게나 요긴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꾸준히 준비한 충실한 자료를 바탕으로 출간된 책이 아닌, 특정 시즌에 임박하여 급조된 책은 내용상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을 담기도 하여

오히려 잘못된 정보나 왜곡된 사실을 독자들에게 제공해 해악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최근엔 한국 영화와 텔레비전 드라마가 아시아권 일부 국가에서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해외 수출을 겨냥하여 해당 영화의 상영이나 드라마의 방영시기에 맞춰 원작 이외의 다른 버전의 책들이 적잖이 출간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각각의 책들이 갖는 고유 의 독창성과 함량이다. 저작권법상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내용상 타 도서에 대해 비즈니스 윤리상 자유로운 상황에서 이 두 가지가 충족된다면, 하나의 주제에 대한 여러 버전의 책들이 출간된다 하더라도 독자들 입장에서는 초기 선택의 부담은 있겠으나, 그와는 달리 하나의 대상을 다양한 시각으로 다각도에서 감상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그것이 오히려 출판시장을 풍요롭게 만들 수도 있다.

시즌 기획도서의 가장 큰 매력은 그들이 가장 신선하고, 가장 시기적절한 정보를 담는다는 점이다. 그래서 훌륭한 기획도서는 언제나 누구에게나 환영받는다. 그러나 좀 더 욕심을 낸다면, 시즌 기획도서가 특정 시즌 기획도서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해당 시즌 후에도 긴 생명력을 유지하는 가운데 독자들로부터 꾸준히 사랑받는 책으로 남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한 철 화려한 장다리'도 좋지만 '사시사철 푸른 미나리'로 남는다면 더욱 금상첨화이기 때문이다. ■